

## 개인간 누적대출액 2조 돌파, 여기서 더 클까?

# 최대 관건은 '투자금 한도 상향'

### 금융 예측 2018 ④ P2P 대출 (끝)

지난해 대출액 전년비 246% 급증  
올 가이드라인개정·제도권 입성  
미흡했던 투자자보호 강화도 기대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시장이 '중금리대출 강자'로 부상하며 누적대출액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투자자 한도 상향,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되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 전체 누적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조 1744억원으로 2016년 말(6289억원) 대비 245.7%(1조545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P2P대출 업체 수는 183개로 46.4%(58개사) 늘었다. 이 중 전체 시장의 76.0%를 차지하는 P2P금융협회 회원사의 지난해 말 누적대출액은 1조8034억원으로 1년 만에 285%(1조3351억원) 성장했다.

P2P대출 시장은 중금리대출과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급성장해 왔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다수의 대출자와 다수의 투자자를 연결해 주면서 대출자에게는 비교적 중·저금리로, 투자자에게는 저금리 시대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한 영향이다.

그러나 시장이 점차 커지자 금융 당국은 투자자·대출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2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막는 것이 핵심으로 업계의 성장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는 기존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만료(2월 27일)를 앞두고 지난해 말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P2P대출업체수 및 대출추이) 단위:社, 억원, %

구분	'15년말	'16년말(A)	'17.6월	'17.11말(B)	증감(B-A)(증가율)
P2P업체수	27	125	162	183	58(46.4)
협회회원사	-	34	56	58	24(70.6)
누적대출액	373	6,289	13,981	21,744	15,455(245.7)

주) 출처: 'P2P금융협회', '크라우드연주소' 발표자료.

(연체율 추이) 단위: %

구분	'16년말	'17.6월	'17.11말
전체 연체율	1.24	2.36	7.12
신용대출 전문업체	1.94	1.90	3.52
부동산PF 전문업체	1.22	3.94	13.71

주) 연체율: 30일이상 연체대출액/대출잔액 비율 2) 연체율은 P2P금융협회 회원사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업계에 따르면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투자한도 상향 ▲투자자 보호 강화 ▲원리금 수취권 해석 명문화 ▲협회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등이 담겼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당국은 투자 한도를 '연간'으로 표시했으나 사실상 '잔액'을 의미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투자자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1000만원을 투자한 뒤 100만원을 거두면 다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식이다.

이에 업계에선 투자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협회 측은 28일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 투자한도 상향에 대한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P2P금융 업계 관계자는 "P2P 투자 한도 구간이 일반 개인투자, 소득적격 개인투자, 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업계는 구간별로 2~3배 상향하는 등 다양한 안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한도 금액은 제시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선 투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 예치금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출 채권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대출 채권을 P2P 업체마다 신탁에 맡겨놓거나 법무법

인과 계약해서 연계 업체가 도산 시 분배하는 식으로 계약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업체가 그런 장치를 사용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등의 P2P투자 제한 해제에 대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2P투자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인 '원리금 수취권' 매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걸 우선으로 봤다.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자율규제도 강화하고자 했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회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P2P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업계에 요구한 자료들을 준비 중이다. 2월 28일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발표일 3주 전에 공개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투자금 한도 상향,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조정되면 업계가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오는 3월부터 P2P대출 업체의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아울러 투자한도가 높아지면 중금리대출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삼성 한국형TDF' 수탁고 3000억 돌파

###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은 8일 삼성 한국형TDF가 수탁고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삼성 한국형TDF는 2016년 4월 설정 이후 꾸준히 자금이 증가해 약 7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한 국내 TDF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펀드는 출시 1년 만인 지난해 4월 수탁고 1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9월에 2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펀드 성과가 이러한 수탁고 증가를 뒷받침했다. 삼성 한국형 TDF의 7개 펀드 상품 모두 누적수익률이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이 중 2045 펀드는 설정 후 20.59%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 6개월 7.47%, 1년 17.0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에프앤가이드 1월 5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측은 안정적인 성과의 원인을 삼성 한국형TDF만의 고유한 '자동 자산배분 프로그램(Glide Path)'에서



찾는다. 자동 자산배분 프로그램이란 대다수 연금자산 투자자가 자산배분에 대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은퇴시점만 정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TDF가 최적의 투자를 수행하도록 설계한 자동 리밸런싱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히 삼성 한국형TDF는 자동 자산배분 프로그램 설계 시 퇴직연령, 기대수명, 취업연령, 임금상승률 등 미국인과는 다른 한국인 고유의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를 반영해,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TDF'를 구현했다.

/김민호 기자 kmh@

# '12.4조 성장세' 헤지펀드 수익률은 '빈익빈 부익부'

### 운용성과 쌓이면서 수익 희비

### 관계자 "다양한 운용전략 필요"

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절대수익을 낸다'는 한국형 헤지펀드. 지난 2011년 12월 출범한 지 올해로 7년째 접어들었다. 헤지펀드는 12조원대의 시종자금을 뿔아들이며 자금 블랙홀이 됐다.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기관과 초고액자산가의 자금이 몰리고 있어서다. 그러나 트랙레코드(운용성과)가 쌓이면서 한국형 헤지펀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8일 NH투자증권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형 헤지펀드 설정액은 12조 4606억원을 기록했다. 11월 말 12조 4472억원보다 감소했다.

개별 헤지펀드 설정액은 NH애플스투와 '삼성 다빈치 1호'의 설정액이 각각 4524억원, 4044억원으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형펀드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헤지펀드가 대안 투자처를 찾는 고액 자산가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지난해 6조원 규모의 자금이 이탈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자 투자자들이 환매에 나선 것.

헤지펀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생 운용사도 우후죽순 등장해 헤지펀드 운용사 수는 107개까지 늘어났다.

자금 블랙홀은 교보증권이다. 교보증권 헤지펀드 95개의 순자산 총액(설정액+운용이익)은 지난해 말 기준 1조5553억원으로 업계 1위다.

여기에 2015년 10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도 주요했다. 헤지펀드 운용 요건이 자기자본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고, 투자 최소금액도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 결과 시장에 새로 뛰어든 헤지펀드 운용사가 크게 늘고 자산가들의 투자도 증가했다.

운용사들의 투자 실적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지난해 수익률이 가장 컸던 펀드는 '트리니티 멀티 1호'로 107.71%에 달했다. 헤지펀드의 주요 전략인 멀티 스트래티

### <한국형 헤지펀드별 설정액> 단위:억원

구분	한국형 헤지펀드명	설정액
1	NH 애플스투트	4,524
2	삼성 다빈치 1호	4,044
3	미래에셋 아비트리지 1호	3,158
4	흥국 재량투자 2호	2,038
5	타임폴리오 The Time-H	1,711
6	타임폴리오 The Time-A	1,653
7	삼성 Equity Hedge1호	1,545
8	타임폴리오 The Time-H	1,498
9	HDC 프레스토	1,495
10	피데스 신머이B&I	1,489
합계		124,472

주) 12월 29일 기준.

(자료=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언론보도 종합)

지(Multi-Strategy)를 쓴 '브로스 형제 R'도 50.76%에 달했다.

통속 전략을 쓰는 DS자산운용의 '디에스진(珍)과 디에스 정(正)은 각각 51.99%, 50.4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플랫폼 액티브메자닌 1호'와 '플랫폼 액티브메자닌 2호'도 각각 94.71%, 38.47%의 수익률을 냈다. 이들 펀드는 피스트 인덱스, 매지진 전략을 쓴다.

기업공개(IPO) 전략을 쓰는 '파인밸류 IPO플러스'와 '아이온 니케 HNW 1호'도 각각 30.96%, 24.79%의 수익률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한다는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랙레코드가 쌓이는 만큼 한국형 헤지펀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한국형 헤지펀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운용인력들의 전문성이 확대됐지만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한국형 헤지펀드가 퀀텀점프를 하려면 보다 다양한 운용 전략 구사가 가능해야 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미적미적한 태도도 헤지펀드에는 아픈 부분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부터 참여를 했지만 아직 업계가 만족할 만한 투자는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 투자 방식을 참고하는 다른 연기금과 공채회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민호 기자

## 투자고수 모여라... '중주식 모의투자대회'

키움증권 15일부터 4주간 진행  
종합 수익률 1등에 6000위안화

키움증권이 '제2회 중국주식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회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진행된다.

제2회 중국주식 모의투자대회는 종합 리그와 주간리그로 나뉘지며, 최종 종합 리그 수익률 1등에게는 6000위안화, 2등에게는 4000위안화, 3등에게는 2000위안화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매주 수익률 1등에게는 1000위안화 상금이 별도로 지

급된다. 김정훈 키움증권 글로벌영업팀장은 "2017년도 미국 나스닥지수가 연간 28.2% 상승한 반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연간 6.1%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실제매매와 유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중국주식 모의투자대회를 통해 간접 경험을 쌓아 중국주식 실험투자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참가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영웅문4, 영웅문W)을 통해 가능하며 모의투자 매매는 영웅문4를 통해 할 수 있다.



중국주식 모의투자대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대우건설, 올해 2만4700 가구 아파트 공급

지난해보다 5000여 가구 증가  
서울 1409·지방 6344 가구 등

대우건설이 올해 지난해보다 5000여 가구 늘어난 2만4700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새해 전국에서 2만4785가구의 새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8일 밝혔

다. 이는 지난해 공급한 1만9583가구보다 5000여가구 늘어난 것이다.

서울에서 1409가구, 인천·경기 1만7032가구, 지방에서 6344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2만17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947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주상복합 4848가구, 오피스텔 458실 등이다.

대우건설은 이달 중 과천 주공7-1단지 재건축하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씨밋'으로 첫 분양에 나선다. 총 1317가구이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5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3월에는 춘천 온의동,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각각 1천176가구, 548가구를 선보이고 광명 철산 주공4단지 재건축(4월), 수원 고등주거환경개선지구(5월), 서울 사당 3구역(7월), 흥제동 1주택 도시정비사업(10월) 등에서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